

▶ 고창 명품 상설공연 '모양마을 사람들' 성료

# 신명나는 무대부터 부대행사까지 큰 박수 받았다

농악 중심으로 사자탈춤 등 볼거리 제공  
고창읍성 스탬프 투어 등 놀거리들 호응  
쿠폰북 티켓으로 제작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창의 명품 토요상설공연 '모양마을 사람들'이 최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작품은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지난 2년간 선보였던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화 귀경가세'의 뒤를 잇는 감성농악 시리즈로 지난 5월 27일 개막해 4개월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폐막 공연에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해 윤종기 고창군농협지부장, 김갑선 해리농협장, 이상경 흥덕농협장, 오양환 선운산농협장, 부안농악 상쇠 나금추 명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감성을 품은 농악극 '모양마을 사람들'은 도로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모양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을곳을 치며 공동체의 식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인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용기놀이, 사자탈춤 등의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잔뼈 굵은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 공연내내 관객들에게 깊은 감



'모양마을 사람들' 폐막 공연에 참석한 박우정 고창군수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동을 선사했다. '모양마을 사람들'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오는 10월 1일과 2일 2017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초청되어 2회의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부대행사도 성공적이었다. 고창읍성을 한 바퀴 돌며 스탬프 투어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고창읍성 스탬프 투어'와 어린이들이 즐겁고 부담없이 전통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토요문화놀이터'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고창군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고창 관내 카페, 식당, 숙박업소 등 31개 제휴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쿠폰북을 티켓으로 제작해 관광객과 제휴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연패키지를 선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고창군 소재의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선발해 공연 홍보와 진행을 도와주는 서포터스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교육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폐막 공연을 찾은 직장인 김선경(33) 씨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이 여전히 생동하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임을 깨닫게 한 훌륭한 공연이었다"며 "아름다운 한옥을 배경으로 한 무대구성이 정겨운 시골마을 속으로 들어온것 같은 효과를

주어서 극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스탬프 투어' 후 공연을 관람한 이희문(42) 씨는 "스탬프 투어부터 멋진 공연까지 장장 세 시간 동안 참여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부대행사는 물론 공연 마지막까지 관객들과 함께 하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참 좋았다"며 "문화의 고장, 고창의 힘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작품을 총괄제작한 이명환 (재)고창농악보존회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도리화 귀경가세'에 이어 계속해서 고창농악 상설공연에 관심과 애정을 두고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관객들이 고창농악 상설공연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은 전라북도, 전북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진흥식품, 국순당고창명주, 스탬프협동조합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더 테이블' (사진 왼쪽부터),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4일 개봉작 3편... '더 테이블' '파리 시청 앞에서...'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 독특한 감성 · 파격적 연출이 일품

'더 테이블', 하나의 테이블에 하루 동안 머물다 간 네개 인연 그려  
'파리 시청 앞에서...',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의 일상 기록  
'밤섬해적단...' , 국보법 위반으로 회부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답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독특한 감성과 파격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세 편을 24일 개봉·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카르트 블랑슈 섹션을 통해 소개됐던 '더 테이블'은 하나의 카페, 하나의 테이블에 하루 동안 머물다 간 네개의 인연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네개의 인연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와 인연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인물의

대사와 표정으로만 전개되며 정유미, 한예리, 정은채, 임수정 네 배우와 '최악의 하루'를 연출한 김종관 감독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큐멘터리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로베르 두아노'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의 일상을 그의 손녀와 친구들 그리고 뮤즈들의 목소리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작품은 방황하던 소년에서 살아 움직이는 파리를 다채롭게 기록한 사진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미장센과 함께 담았다.

또한 상영시간 내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그의 작품들과 예술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상의 행복에 대한 로베르 두아노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강한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편의 영화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상영작으로, 그리핀드 코어밴드 밤섬해적단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회부되면서 겪게 되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90년대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 '논픽션 다이어리'를 연출한 정윤석 감독의 신작. 비디오아트적인 CG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비롯해 복합을 바라보는 시선과 표현의 자유, 청춘, SNS까지 주제를 다채롭게 다룬다. /정해은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손수제작물 공모전 수상자 선정

최우수상 '대물림' 이한영씨  
우수상에 '씨름' 광기혁씨  
'여울다'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이 주최하고 국제무형유산원(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김진)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실시됐다.

문화재청정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은 '대물림'을 출품한 제주해녀문화보존회의 이한영씨가 차지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작품은 할머니의 대를 이어 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강은아 씨의 해녀문화 전수 과정을 담았다. 선배 해녀로서 할머니에 대한 손녀의 무한 신뢰와 대를 이어가겠다는 그녀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이 잘 전달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이 수여하는 우수상은 광기혁 씨의 '씨름'과 김지현·김민주·임승영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 팀의 '여울다'에 각각 돌아갔다.

'씨름'은 한국의 전통놀이 씨름을 소재로 한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익살스럽고 재치있게 표현했으며, '여울다'는 무형유산을 이어가는 주변인들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담으며 공감대를 얻어냈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무형유산원상륙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에 각각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 솜리골 작은 미술관서 '영화 속 그림 읽어주는 작은 미술관' 기획전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율)의 솜리골 작은 미술관은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영화 속 그림 읽어주는 작은 미술관'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설가(도슨트)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관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영화를 중심으로 펼쳐질 전시는 밀레의 민중 외에도 모나리자, 베아트

리체 첸치의 초상,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등 25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들 작품 중, 밀레의 '민중'에 집착했던 화가 달리는 그림 속 농부 부부의 발 앞에 놓인 바구니 안에 아기 시체가 숨겨져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X선 조사를 실시했는데 흥미롭게도 바구니가 그려진 부분에 정말 어렴풋한 어떤 형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정해은 기자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 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담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전라북도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주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복로 15 ·문의, 063)320-5004-05

2017 무주 담대천 물축제 8.26~27, 9.20~9.30 (4일간)